

성서한국

THE KOREAN BIBLE SOCIETY NEWS

2019년 겨울 제65권 4호



중앙아메리카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세요!



(재)대한성서공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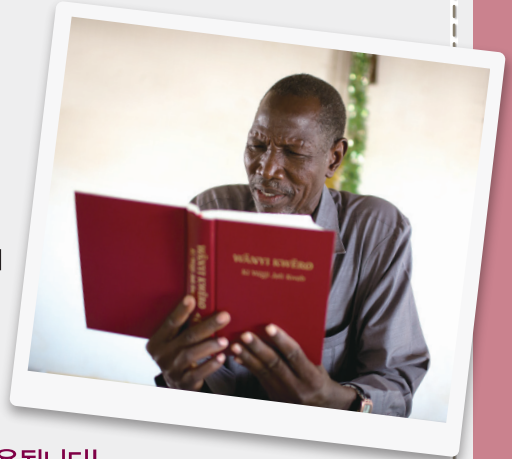
KOREAN BIBLE SOCIETY

대한성서공회 성경 기증 프로그램

THE KOREAN BIBLE SOCIETY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복음이 전해진 나라

130여 년 전,
한반도에 서양 선교사가 입국하기 이전에
한글 성경이 번역, 보급되면서
한국교회가 시작되고 형성되었으며,
한국교회는 성경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회원님이 보내주신 헌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첫 번역 성경 프로젝트 지원

아직도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부족들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첫 번역 성경'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미자립 성서공회 사역 지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성경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합니다.



문자교실 & HIV/AIDS 치유 프로그램 지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자교실을 통하여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에이즈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보급합니다.



국내 성경 지원

국내 미자립교회, 군 장병, 북한이탈주민 등에 성경, 신약, 단편, 전도지 등을 보급합니다.

교회와 후원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헌금은 생명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국내와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사역에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문의 080-374-3061 (수신자 부담) / www.bskorea.or.kr

성서한국

2019 겨울 제65권 4호

02 포토에세이

하나님의 말씀에 평안의 힘이 있습니다

04 2019 성서사업 보고

06 커버스토리_중앙아메리카 지역

폭력과 범죄에 노출된 중앙아메리카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세요!

10 2019 해외성서 기증 현황

2019년 후원회원들의 후원으로
50개국 지구촌 이웃들에게
327,887부의 성서를 전했습니다

12 말씀을 만나다

베헤못

14 성경을 받은 사람들

피지 '마우미' 부족이 모국어로 된
첫 신약전서를 받았습니다

16 현장이야기

위기 속의 기독교인들

18 성서공회 운동을 위한 기도

유럽·중동 지역을 위한 기도

21 후원회원

후원회원 초청 성경 기증 예식 보고

22 후원교회

24 대한성서공회 소식

- 1.제13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다
- 2.대한성서공회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설립 목적은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반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의 회원국으로서 범세계적인 협조를 통하여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발행인 겸 편집인 : 권익현
- 발행처 :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주 소 : 본사 (0673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출판센터 (10844)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열지로 344번길 110
반포센터/홍보진흥본부(모금, 홍보)
(1708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 197
- 회원문의 : 080-374-3061(수신자부담)
- 성경구입 및 전도지 문의 : 02-2103-8846~7
- 자료번호 : 7511327
- 발행일 : 2019년 12월 30일
- 인쇄인·인쇄처 편집 : (주)타라그래픽스
- <https://www.bskorea.or.kr>
인터넷으로 성경 본문과 성서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본지는 도서잡지 윤리실천 강령을 준수합니다.(비매품)
- 성서한국을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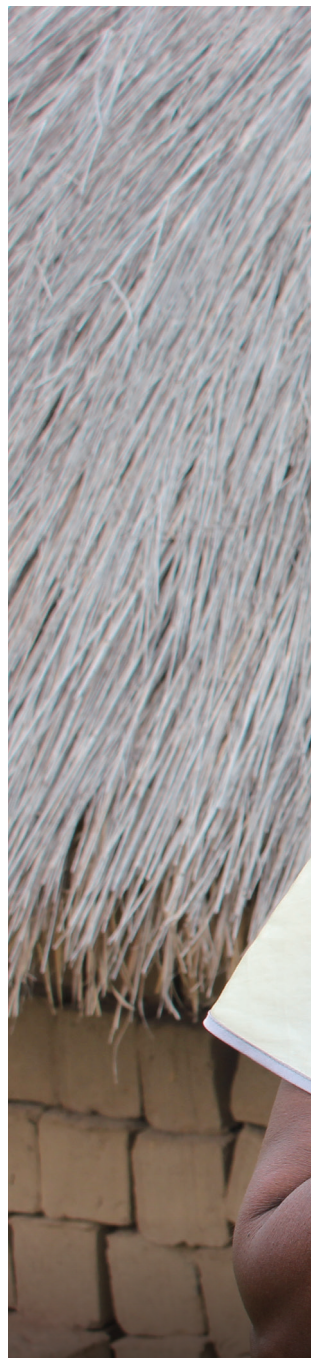
“하나님의 말씀에 평안의 힘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되는 내전을 피해
동부 나이지리아에 있는 타라바 주에서
도망쳐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하나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망스러웠고,
마음 속에는 화만 가득했습니다.
그런 제가 성경 듣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도 용서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고,
공동체에서 성경을 함께 읽으며,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평안을 힘입어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받고 행복해하는 나이지리아 난민 테른거

“한국에서 보내주는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해 왔습니다



권익현 사장

금년 9월, 본 공회 후원회원들을 초청하여 해외 성서 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후원회원들은 성경 제작 현황을 둘러보고,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10여 개 성서공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 지역 성서 보급 현황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서아프리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극단주의 이슬람과 토속 종교의 도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성서 보급에 대한 강력한 요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성서공회 대표들은, 한국에서 보내주는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있으며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성경을 보내주는 한국은 마치 천국과도 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국내 성서 보급

금년에는 지난해 동기간보다 2,202부가 증가한 527,326부의 성경을 보급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개역개정판 성경은 402,983부가 보급되어, 지금까지 본 공회를 통해서 10,298,753부를 보급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내 출판사들이 본 공회로부터 개역개정판 본문 사용에 대한 저작권 허락을 받아 출판한 주석성경 12,670,805부를 포함하면, 약 2천 3백만 부의 개역개정판 성경이 보급되었습니다.

해외 성서 보급

금년에는 108개 나라에 185개 언어로 총 4,543,078부의 해외성서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지난해 동기간과 비교해 부수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금액으로는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또, 자매 성서공회들로부터 성경조판을 요청받아, 다투가 성경, 키스쿠마 성경, 스와힐리-영어 대조 성경, 키하 신약(탄자

니아), 예사히 성경(가나), 시룡가 성경(모잠비크)을 조판하였습니다. 2009년 이후 자매 성서공회들의 요청으로 조판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건수는 총 181건입니다.

해외 성서 지원 사업 및 모금 사업

본 공회에서는 세계 성서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 지원하는 재정적 인적 지원과는 별도로, 금년에 50개국 성서공회에 327,887부의 성서를 기증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남수단 르완다 부르키나 파소 앙골라 콩고공화국 등 20개국, 중남미의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칠레 페루 등 16개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라오스 몽골 미얀마 파푸아뉴기니 등 8개국, 유럽 중동 지역의 그리스 레바논 요르단 조지아 등 6개국에 성서를 지원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 교회와 후원회원들께서 해외 성경 보내기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헌금을 보내 주셔서, 지난해 동기보다 약 3억 7천여만 원이 증가한 40억 3천여만 원이 답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지난 6년 동안 매년 10% 이상 모금 금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후원회원들의 회비 외에, 교회와 개인들의 특별 헌금이 11억 5천여만 원이 답지하여 총 헌금의 약 29%를 차지하였습니다.

「새한글 성경전서」(가칭) 번역

2012년 12월, 젊은이들을 위한 「새한글 성경전서」(가칭)의 번역을 시작한 이래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기초번역이 완료되었으며, 번역 검토는 99%, 문장 검토는 72%, 기초번역자들의 재검토는 30%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기초번역자들의 재검토를 반영하기 위한 분과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개 분과 중 율법서 분과와 복음서 분과 워크숍을 열어 재검토 내용을 반영하고 있고, 나머지 4개 분과의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매체 자료로,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해설, 그림, 사진, 지도, 영상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대한성서공회 제132회 정기이사회에서 보고한 것을 정리 요약한 것입니다.

한눈으로 보는 2019 성서사업 보고



국내성서 보급

527,326부의
성서 보급



해외성서 보급

108개 나라에 185개
언어로 4,543,078부의
성서를 제작하여 보급



해외성서 기증

50개 나라에
327,887부의 성서 기증



후원헌금

약 3억 7천여만 원이
증가한 40억 3천여만 원

폭력과 범죄에 노출된 중앙아메리카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세요!



중앙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은 신비로운 자연, 풍부한 자원들과 함께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지역 국가들은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한 치안, 폭력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같은 사회적 취약 계층은 수많은 폭력의 희생양이 되는 동시에 범죄의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보물이자 사랑의 열매이며 가정의 기쁨입니다. 하지만 중앙아메리카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가장 보호받아야 할 시기에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고 학대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들이 범죄와 폭력의 고통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

- 시편68편 5절

무너진 가정, 잃어버린 가치

중앙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에서는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 군부독재와 쿠데타, 내전을 겪으며 폭력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오늘날 부모 세대가 되었고 같은 폭력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돈과 탐욕이 중심된 모습으로 물들었고, 무너진 가정 속에서 도덕적, 윤리적, 기독교적 가치는 이제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부모 아래 많은 자녀들이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방치된 상황이며, 점점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는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는 부모로부터 배울 수 없었던 성경적 가치를 배워야 합니다.



폭력에 노출된 어린이와 청소년

과테말라는 세계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사회의 빈번한 범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지만 어린 나이로 인해 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범죄의 작은 병사”로 불리는 어린이들도 다수입니다.

온두라스 또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범죄와 폭력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온두라스 통계청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온두라스 도시 인구의 57.3%가 25세 미만으로 다수를 차지합니다. 온두라스의 범죄 집단인 ‘깡’들은 이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폭력사태에 동참할 인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이들은 반란군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엘살바도르는 ‘구주’라는 의미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깡의 확산으로 인해 이 나라는 평화의 나라가 아닌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깡단에 합류하는

대다수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11세에서 15세 사이로 매우 어린 나이에 범죄를 경험합니다. 갱단에 속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폭력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지만, 이들을 통해 나타나는 학교 중퇴, 십대 부모, 가족 문제들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피난처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범죄자 조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갱단과 교도소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받아들이면,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폭력의 사슬은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과테말라성서공회는 ‘피난민을 위한 두 날개’(Wings of Refuge)라는 단체와 함께 삶의 의욕을 잃고 위험에 처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경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과가 있는 어린이와 고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메시지를 전달하여 아이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평화와 회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학교에서 성경적 가치와 원칙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갱단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예방하고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말씀



▲ 성경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씀으로 다시 세워져 나갈 때 지역 사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 될 것입니다.

헥토르는 부모의 가정폭력과 이혼으로 보호소에 들어왔고 성경 학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헥토르는 자신이 본 성경에서 피난처를 찾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버림 받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 그림성경을 읽고 있는 헥토르



▲ 조부모와 함께 성경을 읽는 아이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읽었을 때 저는 성경에 빠져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되어 너무 감사해요”

- 성경 학교에 다니는 10살 소년 헥토르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킬 성경

온두라스성서공회는 현재 가정용 예배성경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성경전서와 함께 8세에서 12세 사이의 어린이들을 위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자녀와 부모 또는 조부모가 함께 성경을 읽고, 이야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정용 예배성경은 여러 가정과 교회에 배포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이 희망과 위로를 경험하고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



중앙아메리카 지역에 전달하는 컨테이너 한 대에는 10,000권의 성경을 채울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헌금하시면 20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중앙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에 보내는 컨테이너에 성경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후원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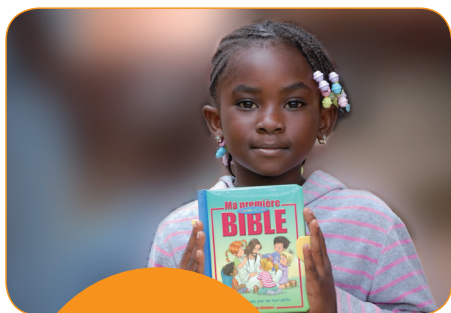
후원 문의 ☎ 080-374-3061(수신자 부담)

2019년 후원회원들의 후원으로 50개국 지구촌 이웃들에게 327,887부의 성서를 전했습니다!



유럽 중동 지역
6개국

그리스, 레바논, 마케도니아,
이스라엘, 요르단, 조지아



아프리카 지역
20개국

가나, 가봉, 기니 비사우,
남수단,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
라위, 부르키나파소, 상투메,
세네갈, 앙골라, 우간다,
짐바브웨,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
냐, 콩고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아메리카 지역 16개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 8개국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과테말라,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아이티, 에
콰도르, 온두라스,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
라과이, 페루, 푸에르토리코

베헤못(Behemoth)



▲ 하마

관련 구절

브헤모트(behemoth) 욥기 40:15

이름에 대한 논의

성경의 다른 문맥에서 히브리어 ‘브헤마’(behema)는 일반적으로 큰 동물, 특별히 가축을 가리킨다. 그러나 욥기 40:15가 묘사하는 이 동물은 특별한 종류의 동물로 등장하고 있다. 이 동물의 정체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1)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신화적 괴물이다. 후대 랍비 문헌들은 이 동물을 다른 괴물인 리워야단과 격렬한 싸움을 한 괴물로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창세기 1:21에 언급된 ‘큰 바다 짐승’과 연관이 있다.

2) 하마이다. 이 제안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많은 영어 역본들은 각주에 이렇게 표시하고 있다. 하마는 이집트에 잘 알려져 있는 동물임에 틀림없으며 아마도 메소포타미아의 일부 지역에서도 알려졌다 것이다. 그러나 욥기 40:15-20의 문맥과 하마는 많은 점에서 잘 어울리지 않는다:

우선 욥기 40:16에서 묘사하는 베헤못의 힘과 강한 근육은 대부분의 시간을 조용하게 풀을 뜯어먹거나 물에서 쉬기만 하는 하마와 연관 짓기가 어렵다. (하마의 턱은 대단히 강하고 특히 수컷 하마는 위험한 동물이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평가해볼 때 하마의 근육과 힘이 매우 감탄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둘째로 하마의 작고 뭉툭한 꼬리는 들어올리기 어렵고, 자신이 싣 대변을 흠어뜨리는 데만 사용된다. 이 점은 욥기 40:17에서, 꼬리치는 것이 백향목(또는 레바논개잎갈나무) 모습 같다는 언급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욥기 40:20에 나타난 베헤못은 산의 풀을 먹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하마는 보통 강변에서 서식하며 또는 범람원 주변이나 강물이 흐르는 골짜기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 언덕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하마는 극도로 짧은 다리와 무거운 체중 때문에 바위를 넘거나 가파른 언덕을 오르기는 힘들다.

3) 남부 이집트의 나일 계곡, 수단, 에티오피아에 살았던 아프리카코끼리와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살았던 인도코끼리는 구약시대에도 알려져 있었다. 베헤못에 관한 설명은 하마보다는 코끼리에 더 잘 어울린다. 이 동물의 강력한 힘이 가장 뚜렷한 증거이다. 달릴 때 코끼리는 자신의 꼬리를 곧게 세운다. ‘꼬리’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코끼리 코로 해석될 수도 있다. 욥기 40:21에서 ‘가시나무 아래나 습지의 갈대밭 그늘에 누우니’라는 묘사는 진흙구덩이나 강에서 진흙 목욕을 하거나 뒹군다고 잘 알려진 코끼리의 습관을 가리킬 수 있다.

번역

가장 좋은 번역은 본문에 ‘괴물 베헤못’으로 적은 뒤, ‘이것은 아마도 코끼리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각주를 덧붙이는 것이다. 🌐

출처: Edward R. Hope, 『성서 속의 동물들』, 이영미 외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8), 251-253; *All Creatures Great and Small: Living Things in the Bible* (UBS, 2005).

◀ 아프리카코끼리



피지 ‘마우미’ 부족이 모국어로 된 첫 신약전서를 받았습니다



▲ 첫 모국어 신약전서를 받고 기뻐하는 마우미 부족 사람들

피지의 마우미 부족민들은 피지 섬의 가장 융성한 전사 부족으로 알려진 와이모로 부족에 속합니다. 마우미 부족의 고향은 원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피지의 고원 지대였지만 점차 바우(Bau) 지구의 야자수가 펼쳐진 해변가에 정착했습니다.

3천 명이 넘는 마우미 부족민들은 ‘마우미어’로 불리는 피지어의 방언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피지의 가장 큰 부족들이 사용하는 ‘바우어’ 방언이 나라에서 통용되는 언어이자 표준 피지어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언을 제외한 그 어떤 방언도 제대로 된 단편성서로 번역되지 못했습니다.

“

*마우미어는 피지에 사는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전서를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의미 있는 교제를 경험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하지만 드디어 ‘마우미어’ 신약전서가 봉헌되었습니다. 마우미족 지도자들, 그리스도인들,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남태평양성서공회 직원들은 이 번역의 완료를 기념하고, 이 프로젝트에 투입된 수년 간의 노력을 돌아보기 위하여 피지 중부에 있는 마우미 부족의 한 교회에 모였습니다.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제 영혼 깊은 곳까지 말씀이 도달합니다.”

번역자 중 한 명이었던 마타이아시 키카우(Mataias Kikau)가 모인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마우미 부족민 출신으로 남태평양성서공회의 솔로몬 두루 전 총무는 2007년에 ‘마우어’와 ‘마우미어’ 사이에 차이가 있는 단어들을 교체함으로써 ‘마우미어’로 야고보서 첫 장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작업한 사본을 그 부족장과 대변인에게 주었을 때 사본을 받은 부족민들은 감격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보거나 볼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해보지 못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 모국어로 된 성서였지요.”

이후 2011년 번역 작업이 시작되었고, 2012년에는 ‘마우미어’로 된 단편성서 3권(마가복음, 야고보서, 만화 형태로 된 아브라함의 이야기)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루 총무가 마우미어로 아주 짧은 성서 한 토막을 번역한 초안을 공유한지 12년이 지난 2019년 1월 27일에 ‘마우미어’ 신약전서가 봉헌되었습니다. 번역된 책은 2천 권이 넘게 마우미 사람들에게 반포되었으며, 부족장은 성서공회에 감사를 표하며 번역 작업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날에 저는 이 놀라운 사역에 대해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시작한 이 선한 사업이, 우리 모국어로 된 성경전서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번역함으로써 완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사가 마무리될 때 각 씨족장에게 ‘마우미어’ 신약전서를 나누어 주었고, 그들은 여러 가정에 신약전서를 배포하여 이제는 부족민들 모두가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었습니다. 🌐

위기 속에 기독교인들



▲ 캅시키 신약전서를 읽고 있는 카메룬 사람

2019년 10월 카메룬성서공회 록 그노아 총무와의 인터뷰를 정리한 것입니다.

카메룬은 서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제,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습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아프리카 북부를 통해 전파된 이슬람문화가 빠른 속도로 대륙 전체에 확장되고 있습니다.

Q: 카메룬에서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위협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묘사해주실 수 있나요?

록 그노아 총무: 지난 4년간 이슬람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이 카메룬 북부 지방의 교회들을 공격해왔습니다. 아래는 보코하람의 활동이 낳은 피해에 대한 보고입니다:



75,000명의 나이지리아
피난민들이 카메룬의
마와워 수용소로
피난하였습니다.



200,000명의 카메룬
사람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야
했고,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입니다.



250,000명의 카메룬
사람들은 생업이
파괴되었습니다.



250개의 학교가
폐쇄되었습니다.



80개의 마을이
파괴되었습니다.



1,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해되었고, 그들 중
25%가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200개가 넘는 교회들이
폐쇄되었습니다
(15곳 가량은 방화로
소실되었습니다).

Q: 이러한 상황이 성서공회 사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요?

룩 그노아 총무: 보코하람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저희가 진행하던 성경 번역 프로젝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프로젝트 팀이 언제든지 공격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보코하람은 최소한 3~4차례 사역지를 공격했고, 번역자들은 산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산에 머물다가 상황이 진정될 때에서야 집으로 돌아가고, 번역자 사무실로 복귀합니다. 2년 전에는 번역자 중 한 명이 납치되어 산으로 끌려갔으며, 일주일 동안 행방이 묘연하기도 했습니다.

저희의 사명은 상황이 좋거나 나쁘거나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급하는 일이지만 현재의 상황은 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Q: 이러한 사회적 압박이 심한 상황 가운데에서 성서공회가 수행해야 할 주요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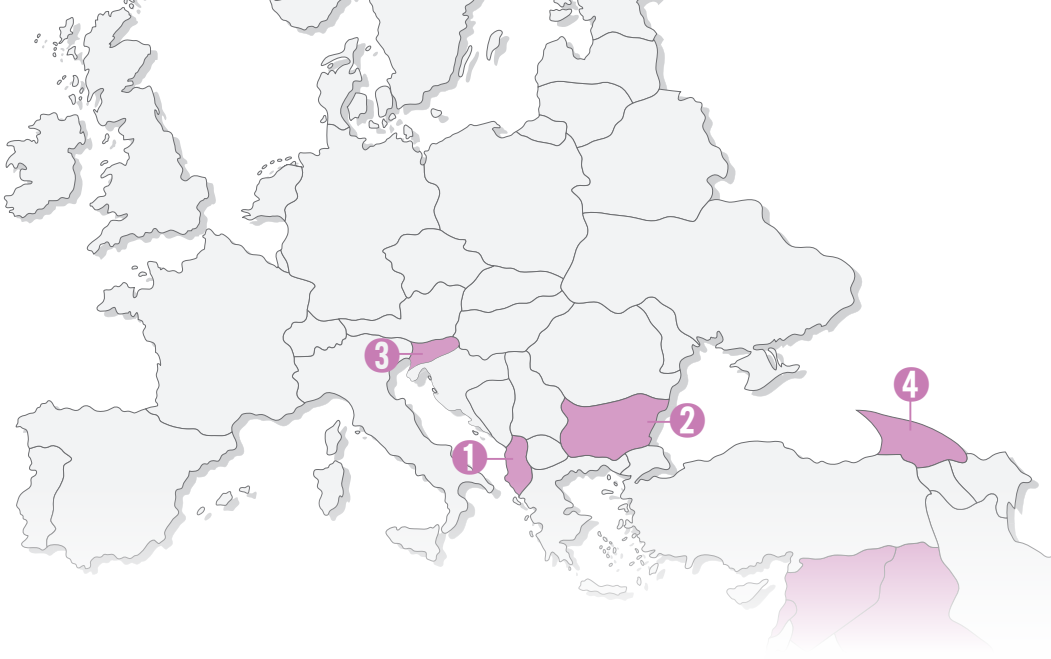
룩 그노아 총무: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사명, 말씀을 보급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코트디부아르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내전으로 인해 여러 고난의 해를 보냈지만 성서반포는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위기의 시간 가운데 그들은 더 많은 성서를 반포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카메룬에서도 경험하길 기대합니다. 🌐



유럽·중동 지역을 위한 기도

① 알바니아

최초로 원문 성경에 기초하여 번역하는 알바니아어 성경전서의 출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재정적 어려움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양한 성경 참여 프로젝트의 개발과 성경 전시회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불가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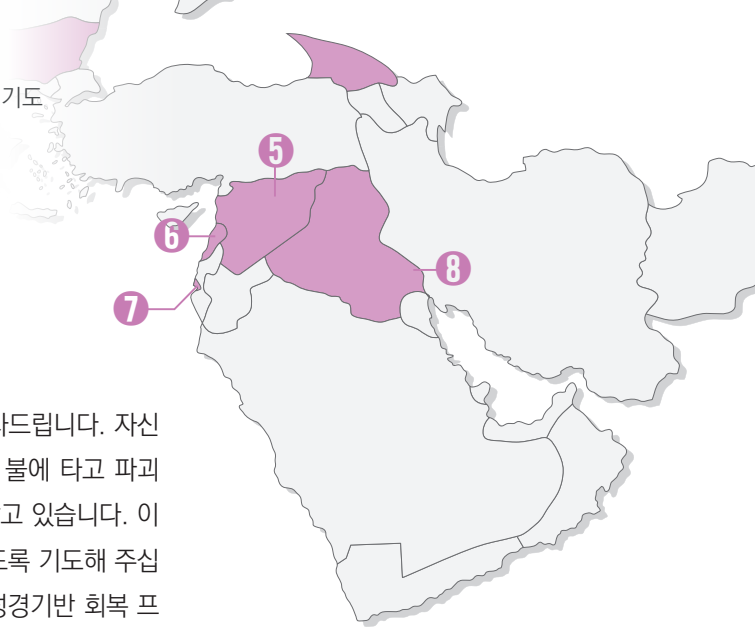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며 나타난 믿음의 열매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서공회가 다음 세대, 특히 어린이와 청년들에게 성경의 원리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성서 출판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메시지를 읽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새로운 선교 프로그램인 '성경을 통한 영적 성장'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한 모든 재정적 지원과 지역 교회와의 연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4 조지아

조지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서사업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서 공회가 사람들의 필요에 맞는 형식과 번역으로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조지아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 이라크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온 난민들이 불에 타고 파괴된 자신들의 집을 보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라크의 모든 지역에 성경기반 회복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를 섬기는 성서공회 자원봉사자와 직원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6 레바논

성경 참여 프로그램에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 성인 모든 세대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기반 회복 프로그램과 진행중인 출판, 그리고 성경 보급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서공회가 성경번역을 통해 중동에 있는 교회들에 계속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성서공회 자원 봉사자들과 직원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7 팔레스타인

동쪽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희망과 평화, 정의, 식량을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역교회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여러 상황 속에서 팔레스타인성서공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 시리아

성서공회가 이 나라와 교회들을 도울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리아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 성경제작 현장을 방문해 둘러보고 있는 후원회원들

후원회원 초청 성경 기증 예식 보고

2019년 9월 24일과 26일, 본 공회는 해외 성경 보내기 운동을 후원하는 후원회원들을 초청하여 ‘후원회원 초청 성경 기증 예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후원회원들은 해외에 기증하는 성경이 컨테이너에 실리는 생생한 현장을 참관하고, 다양한 언어의 해외 성경이 제작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성경을 기증받은 해외성서공회를 대표하여 카메룬성서공회 총무는 한국에서 보내준 성경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며, 자신들에게 성경을 보내주는 한국은 마치 천국과도 같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서사업을 위하여 기도와 후원으로 협력해 주신 후원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기증하는 〈스고 카렌어 성경〉 앞 성문교회 성도들

우리의 사명, 복음 전파

성문교회

미얀마 〈스고 카렌어 성경〉 4,500부 기증

2019년 8월 29일, 성문교회(고동훈 목사)의 후원으로 미얀마에 〈스고 카렌어 성경〉 4,500부를 보내는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미얀마는 뿌리 깊은 불교 국가로, 미얀마의 전체 인구는 약 5천 5백만 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6%에 불과한데, 주로 변경 지역의 소수민족들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고 카렌 부족은 모국어 성경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산악지역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경제 상황도 넉넉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대한 열정은 그 누구보다 넘칩니다.

이번 기증식에서 성문교회의 고동훈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글 성경을 허락

하셔서 한국 교회가 복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을 갖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성경이 카렌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굳게 세우고, 신앙을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기증받은 성경을 들고 기뻐하는 미얀마 사람들

이번에 기증하는 성경은 미얀마성서공회를 통해서 스고 카렌 부족에게 보급될 예정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 스고 카렌 부족이 구원의 소망과 기쁨을 체험하며, 부족 복음화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기증 성경이 실린 컨테이너 앞 김천제일교회 성도들

말씀이 전해지는 모든 곳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김천제일교회

토고 <불어 성경> 5,580부와 탄자니아 <스와힐리어 성경> 15,173부 기증

2019년 10월 15일, 김천제일교회(조병우 목사)의 후원으로 토고에 <불어 성경> 5,580부와 탄자니아에 <스와힐리어 성경> 15,173부를 보내는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토고는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구입해 줄 수 없어서 청소년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습니다. 탄자니아의 전체 인구 중 44%를 15세 이하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성경을 구입할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토고성서공회와 탄자니아성서공회는 소외계층을 위한 성서 기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불어 성경>을 받고 기뻐하는 토고 사람들

이번 기증식에서 김천제일교회의 조병우 목사는 “이 말씀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고 하였습니다. 기증되는 성경을 통해 토고와 탄자니아에 말씀을 통한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



▲ 제132회 정기이사회 전경

1. 제13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다

대한성서공회 제132회 정기이사회가 2019년 11월 28일(목), 오전 10시 30분에 서초 성서회관에서 개최되었다. 1부 기도회에서는 임종수 목사(전 고신총회 사무총장)가 “인생의 문제를 푸는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2부 회무처리에서는 권의현 사장의 사장보고와 사업보고가 있었다. 안건으로는 교단대표로 박태식 신부(대한성공회), 김상현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남상준 목사(기독교한국루터회), 이영훈 목사(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양병희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가 선임되고, 찬성회원 대표로 김순권 목사, 김동권 목사, 문희수 목사, 이선균 목사, 김광년 장로가 선임되었다. 이어 정영철 목사가 감사로 재선임되었고, (주)바이블코리아 이사에 김현배 목사가 재선임되었다. 🌐

2. 대한성서공회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온라인 기부금 영수증 조회 및 발급 방법

1.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www.bskorea.or.kr) 접속
2. 성경후원 > 나의 후원 > 기부금영수증 발급 클릭

*휴대폰 문자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후 발급 가능합니다.

꼭 읽어주세요!

- 온라인 기부금 영수증은 2017년 기부금 영수증부터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이전 연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으로 기발급 받으신 분은 온라인으로 중복하여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온라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에 근거하여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발급을 희망하시거나 기타오류가 발생하신 경우 아래의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모금사업부 080-374-3061

매월 전하는 성경,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사랑하는 가족, 지인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족, 지인분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기쁨을 선물해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팩스



(02-2103-8896)로
전송해 주세요.

우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 197, 대한성서공회
홍보진흥본부)으로 발송해 주세요.

02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성서공회**
입력하신 후,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070-01-0340-570
우리은행 1005-702-311166
KEB 하나은행 630-008603-501
(구,외환은행)

신한은행 140-009-909678
농협은행 355-0025-0990-53
KEB 하나은행 224-910049-47104
송금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대한성서공회)

수협은행 033-01-085327
우 체 국 011916-01-000076

후원문의 Tel. 080-374-3061(수신자 부담)

성경 보내기 후원회원 신청서

(재)대한성서공회

신청인 _____ (서명)

교회명 _____ 직분 _____

휴대전화 _____

집 전화 _____

주소 _____

☐ 우편물거부 ☐ 소식지 이메일 신청

이메일 _____

☐ 매월 1만원 (성경 2권) ☐ 매월 5만원 (성경 10권)
☐ 매월 2만원 (성경 4권) ☐ 매월 10만원 (성경 20권)
☐ 매월 _____ 원 (성경 _____ 권)

신청인(예금주)은 대한성서공회의 선교사역에 후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효성에프엠에스(주)의 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자동이체 신청을 위해 동의함에 꼭 체크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이체일 ☐ 5일 ☐ 15일 ☐ 25일

(잔고 부족 등의 이유로 미출금시 2회에 한해 재출금)

은행명 _____ (휴대전화번호로 된 계좌 또는 카카오�뱅크 계좌 등록X)

계좌번호 _____

예금주 휴대전화 _____

예금주 생년월일(주민등록증 상) _____

※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예금주 _____ (서명)

년 월 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 요한복음 1:12 -

에이즈로 부모를 잃고 가난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귀한 자녀 됨을 느낍니다!

에스와티니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보내주세요!



27.3%

세계에서
가장 높은 HIV(에이즈)
감염율

23%

에스와티니에서
HIV(에이즈)로 인한
고아 비율